

코로나에 발목 잡힌 금호고속...경영위기 심각

그룹 유동성 악화에 코로나까지...버스, 유·스퀘어 고객 급감 경영악화에 임원 임금 20% 삭감·장거리 운행횟수 50% 감축 '서민의 발' 육상운송 위기...공공재 운송업에 국가 지원 절실

1946년 광주-전남을 모태로 출발한 지역대표 기업인 금호고속이 창사 이후 최대의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악화 영향을 받던 중 코로나 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겹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의 발'이자 공공재 성격을 띤 운송·운수업이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한달간 금호고속 버스 이용객은 112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6만1000명에 비해 103만6000명(47.9%)이나 줄었다. 사

실상 반토막이 난 셈이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이용객은 32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95만명보다 62만3000명(65.5%) 감소했다. 이용객이 줄면서 이달 운행 횟수도 장거리 노선 50%, 단거리 노선 30% 감축 운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출장과 여행 등 모든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속어 자연스레 이용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각종 행사와 모임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데다, 밀폐된 공간인 터미널과 버스를 이용하러

는 사람들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터미널을 찾은 고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당달 유·스퀘어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과 영화관 등도 매출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들어서만 유·스퀘어에 입점한 매장들의 매출이 전년보다 60~70% 상당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금호고속이 유·스퀘어 입점 업체의 전체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의 매출이 줄면 금호고속이 받는 임대 수입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요 수입원인 고속·직행버스 운영을 비롯해 유·스퀘어 임대 매출까지 당달이 감소하면서 금호고속의 경영위기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한 탓에 지역과 지역간 이동 자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금호고속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자 비상경영에 들어간 금호고속은 임원 임금을 20% 삭감했고, 무급휴직도 사무직에서 승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회사의 위기에 금호고속 승무원 1300여명 중 3분의 1 수준인 고속 266명, 직행 171명, 전세 20명 등 457명이 휴직을 신청하는 등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 서민들의 보편적인 교통수단인 고속버스 등 운송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모든 임직원이 동참하고 있지만 버스와 유·스퀘어 이용객 감소를 막을 수 없어 감당키 힘들 정도다"며 "국가 교통의 혈액이자 서민의 발인 육상운송이 추락하지 않도록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482.46 (-83.69)	↑ 금리(국고채 3년)	1.15 (+0.05)
↓ 코스닥	443.76 (-23.99)	↑ 환율(USD)	1266.50 (+20.00)

한전, 가스터빈 기동장치 국산화 성공

두산중공업도 제작 참여 이달부터 본격 상업운전

한국전력(대표 김종갑)이 정부 에너지중점기술의 하나인 가스터빈의 핵심설비인 기동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스발전용 가스터빈 기동(起動)장치는 그동안 외국제품에 의존해왔지만 한전이 국산화함으로써 해외 제작사보다 신속하게 발전사의 유지보수 요청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가스터빈 기동장치는 세계 최대 발전기·전기기기 기업인 GE, 다국적 기업 ABB, 일본 전력설비기업 TMEIC 등 해외 제작사가 독점 제작했으며 국내 발전사는 이를 전량 수입해 왔다.

이 장치는 회전운동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이 초기에 일정 속도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장치다. 가스터빈 발전은 석탄화력발전 대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미세먼지 배출이 10~12%에 불과해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발은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4개 자회사와 함께하고 두산중공업이 제작에 참여했다.

한전은 가스터빈 기동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회전체의 속도제어 알고리즘과 같은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한 후 기동장치 설계를 수행했다.



가스터빈 기동장치 기동 모습.

모의 실험설비를 활용해 성능시험을 마친 기동장치는 1월 한국중부발전 보령복합발전소에 설치돼 2개월간 시험을 진행했고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기동 소요시간을 만족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현재 국내 5개 발전사가 운영하는 기동장치는 26기이다. 한전은 2025년까지 노후 기동장치 5기를 국산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석탄화력 사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가스터빈 기동장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가스터빈 기동장치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한전은 가스터빈 기동장치의 성공적인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스피 5% 급락 1480선

장중 사이드카 발동

23일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며 1500선이 다시 무너졌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83.69포인트(5.34%)나 하락한 1482.46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642억원어치를 팔며 13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23.99포인트(5.13%) 내린 443.76에 장을 마쳤다.

이날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0.0원 치수가 달러당 1266.5원에 거래를 마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외화 이벤트 당첨자 경품 증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최근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외화적금' 출시기념 및 '겨울여행 환전페스티벌' 이벤트 당첨 고객을 동구 대인동 본점에 초청해 경품 증정식을 가졌다. '외화적금' 당첨자 51명에게는 200만원 상당 국민관광상품권 등이 주어졌고 '환전 페스티벌'을 통해서는 200여 명에게 상품권 100만원권·모바일상품권 등이 전달됐다. (광주은행 제공)

보안정보 열람·분석...광주 통계데이터센터 개소

전국 4번째·호남권 최초

보안 정보를 열람·분석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가 광주에 문을 열었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은 이날부터 광주 서구 동천동 광주통합청사(나라키움) 4층에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대전·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4번째이자 호남권에서 처음 열렸다.

통계데이터센터는 보안 시설을 갖추고 국가 통계 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 또는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센터는 기존 인구·기업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 14종, 민간데이터 22종을 비롯해 카드·신용데이터 4종도 추가 제공한다.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분석 전문가에게 컨설팅이나 주문형 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데이터 분석도 가능하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 이용료는 1일 5만원부터 책정된다.

호남통계청은 이용자 맞춤형 교육 및 설명회와 지자체·대학·연구원과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호석 청장은 "앞으로 통계데이터광주센터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와 분석자료 생산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여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체온검사에 마스크 안 쓴 주주 출입 금지...달라진 '주총위크'

이주 지역 상장사 34곳 개최 규모 축소·전자투표 확대

"마스크를 써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23일 오전 8시30분께 (주)광주신세계 정기 주주총회(주총)가 열리는 서구 광천동 백화점 1층 출입구에는 체온 측정기와 전신 소독기가 마련됐다. 주주에게 제공할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비치돼 있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좌석 간격을 1~2m 벌려놓았지만 마련한 좌석

의 절반만 채워졌다.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0명만 주총에 참석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총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나머지 주주들은 지난해부터 도입한 전자투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은 이동훈 대표이사와 박인철 관리이사 등 사내 이사를 선임하고 재무제표 등을 통과시키며 30분 만에 끝이 났다.

이번 주(22~28일)는 광주·전남 34곳 등 상장사 1523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슈퍼 주총위크(Week)'로 불린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주총 현장은 사뭇 달라졌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라인 생중계나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현장 행사 규모를 대폭 줄였다.

한국에탈결제원이 올해 전자투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 상장사는 총 850~950개사로, 이는 지난해(650개사)보다 최대 46% 가량 확대됐다.

대부분 지역 상장사에서는 배당 문제와 실적, 이사 선임, 정관 변경, 감사보고서 승인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약원을 통해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광

주·전남지역 상장사는 전체 45개사 가운데 9개사이다. 보해양조·에니젠(주총일 24일), 대우에이텍(25일), 한전KPS(26일), 한국전력(27일), 대우플러스·오이솔루션·행남사(30일) 등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외 광주는 행은 25일, 금호타이어·위니아닷컴·금호산업은 27일 주총을 연다.

27일 열리는 롯데쇼핑 주총에서는 '광산구 생산동 롯데슈퍼주상복합' 추진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